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문가 좌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는 오는 7월 1일 창립 14주년 HIRA 정책동향 특별호 발간에 앞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 지면을 빌어 좌담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좌장** | 윤석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토론자** | 김소윤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기철 교수(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 김태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 최명례 실장(심평원 기획조정실), 김형호 부장(심평원 미래전략부)
| 박인범 실장(심평원 연구조정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3일 오후 2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회의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김소윤 교수(이하 김소윤)
여러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여전히 깨끗한 조직, 이해관계자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사명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행정, 심사, 전산과의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심평원 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권력화 된 모습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연구소와 심평원과의 연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형선 교수(이하 정형선)
 심평원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복지부의 신임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공단과 겹치는 행정업무 분야로 인해 갈등이 양산된다고 보여집니다. 완충자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신기철 교수(이하 신기철)
 심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보험자

를 대신해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게다가 업무가 매뉴얼화 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심사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존재합니다. 중립성과 전문성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김태현 교수(이하 김태현)
 심평원과 공단은 항상 비교 대상입니다. 심평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좀 덜 관료적이고 덜 경직적인 조직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의료계의 경찰 역할로 민간 의료기관에게는 꺼끄러운 존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안: 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건강증진재단을 합친 통합공단
- 2안: 심평원의 일부기능조정



신기철 >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단과 심평원 관계에서 공단의 기능은 심평원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외의 추세를 봐도 보험자와 심사기구는 독립시키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도 심평원을 독립시켜 심사전문기

관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정형선 >
 지금까지 심평원의 주된 역할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심사업무였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불의 단위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이 건강보험의 핵심 쟁점일 것인데, 이럴 때 공단과 심평원의 분리된 구조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바

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 민간보험의 심사업무를 심평원의 업무로 포함해서 심사전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심평원의 존속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행위별수가의 심사업무에 국한되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지불방식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기능개편에 대비하는 안을 생각해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소윤 >

심평원의 기능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합쳐도 기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커지는 것이 좋은 방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심평원은 공단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된 심사기능을 갖추어 공단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기관이므로, 아직은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보여 집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기철 >

정부의 구조조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 합니다. 감독기능의 심평원을 독립시켜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알맞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재정적 효율성만을 생각해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평가의 발전을 위하여



김소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좀 더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른 곳에서 인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도 심평원의 심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철 >

자동차보험도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의한 과도한 입원 기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례 기획조정실장(이하 최명례)

자동차 보험을 가져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보험사 쪽에서는 상당

앞으로도 민영보험회사들이 이에 대해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할 것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형선 >

민영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서 맡아달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민영보험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손형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소윤 >

내부적으로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 지금 같은 심사방식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방식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건건히 모두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롭게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다양성이 행위별수가제와 다른 점이 크게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형선 >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그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윤석준 연구소장(이하 윤석준)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소윤 >

지불제도는 서비스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포괄수가의 분류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행위별수가제와 비슷하다고는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처럼 3대 비급여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불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불단위를 어떻게 묶는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 >

현재 심사기준과 늘어나는 심사건수에 대한 대응이 심평원의 미래지향성과 관련 있고, 지불제도의 변화에 심평원이 빠져 있지 말고 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형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2015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 즈음에는 이를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구도를 짤 때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심평원이 그러한 의견을 집약하는 작업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공단은 돈을 어떻게 걷는지에 전문성이 있고, 심평원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지불방식에 따라 공급자들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불제도는 건보정책의 핵심이고, 심평원에서는 지불단위의 설정 문제를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김태현 >

심평원이 1차와 2차급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분발해야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평원이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김소윤 >

심평원은 사후심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성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재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백내장 같은 경우 포괄수가로 인해 사전절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시술로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평가의 경우 의료발전에는 기여하겠지만 노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평가가 지속가능한 평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형선 >

심평원이 산재, 자보, 민영보험을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최명례 >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가져 오면서 산재보험 또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의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내다본다면 국민의료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

관이 필요 합니다. 그 기관이 심평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소윤 >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되었을 때 거대 조직의 특성상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두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보다는 공단과 건강증진재단, 심평원과 NECA의 비슷한 조직 간의 커플링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 >

심평원은 조직문화 특성상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김형호 미래전략부장(이하 김형호)

현재 심평원은 보험자를 그대로 두고 전문심사 기능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인범 연구조정실장(이하 박인범)

기관의 통합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합쳤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봐야하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합쳐질 경우 시너지가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명례 >

공기업 방면 경영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비효율적인 기업과 비교해서 심평원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재부의 통합에 대한 의견에서도 심평원의 중립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형선 >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개별 공공기관의 기능만을 보았을 때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전체의 흐름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수를 줄인다든지 전체적으로 여유 조직을 재편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심평원의 현재의 기능을 크게 중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평원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강조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흐름에서는 중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완충역할에 대해서



정형선 >

심평원은 각 임상전문가들의 조직(위원회 등)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기 좋은 곳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구조에서 어느 조직보다 임상적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살려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추구와 임상전문가들 사익추구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 내야 합니다.



향후 건강보험 제도의 방향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



신기철 >

연금보다도 건강보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괄식구조는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여 보건 의료 체계에서 확고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곳들도 존재 합니다. 이처럼 심평원이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장성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기관들이 평가에 민감하여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김소윤 >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급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 합니다. 지불보상제도는 물량과 가격을 생각하여 전체를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 의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심평원은 다양한 미래 의료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을 주도적

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생각은공단만의 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평원에서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사례를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호 >

심평원은 이런 문제로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을 심평원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